젊은피 돋보인 '녹두전' '어쩌다…' 선전

장동윤·김소현 주연 '녹두전' CPI 지수 2위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243.9로 3위
장동윤 여장연기와 김혜윤 코믹연기 화제

KBS 2TV 월화극 '조선로코-녹두전' 속 여장연기를 펼치는 장동윤. 연합뉴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랄한 작품과 캐릭터를 소화하는 데는 역시 혈기 왕성한 청춘들이 제격이다.

9일 CJ ENM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10월 첫째 주(9월 30일~10월 6일)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CPI) 집계에서 장동윤-김소현 주연의 KBS 2TV 월화극 '조선로코-녹두전'과 MBC TV 수목극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각각 2위와 3위를 새롭게 차지했다. CPI 지수는 254.9, 243.9이다.

'녹두전'은 역시 장동윤의 여장 연기가 최고의 화제를 낳았다.

편의점에 침입한 강도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일로 뉴스 인터뷰에 응했다가 연예계에 데뷔한 장동윤은 '솔로몬의 위증', '학교 2017', '미스터 션샤인', '땐뽀걸즈' 등에 주·조연으로 출연해 신선한 매력을 보여왔지만 '대세' 반열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녹두전' 속 여장남자 전녹두 역을 통해 부담스럽지 않은 상큼함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면서 데뷔 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고운 한복 차림에 비녀를 꽂은 모습은 그동안 수없이 보아온 남장여자 캐릭터보다 훨씬 큰 충격을 안겼다.

녹두와 반대로 선머슴 같은 동동주 역을 소화 중인 김소현과의 호흡도 합격점이다. 장동윤이 웬만한 로맨틱코미디 여주인공보다 재기 넘치는 매력을 보여주는 사이, 김소현이 자신의 장점인 미모는 상당 부분 내려놓은 채 연기 호흡에 주력한 것이 주효했다.

상큼 발랄한 남녀 주인공이 보여주는 기대 이상의 호흡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임에도 연출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만든다. 월화극 폐지 기류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7%대의 시청률은 돋보인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역시 '녹두전'만큼이나 독특한 소재를 내세웠다. 만화 속캐릭터가 살아 움직인다는 콘셉트는 과거 송재정 작가의 '더블유'(W)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명랑하고 쾌활하다.

자신이 여주인공이 아님을 깨닫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은단오는 10~20대가 공감하기에 딱 좋은 캐릭터다. 작가의 농간에 따라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 단오는 코믹하기도, 안쓰럽기도 하다.

단오를 연기하는 김혜윤도 최적의 캐릭터를 만난 모양새다. 'SKY 캐슬'에서 욕심쟁이지만 동시에 순수한 예서를 연기해 호평받았던 그는 이번에 엉뚱하고도 순진한 매력을 살려 만화 속 캐릭터를 그야말로 만화처럼 연기한다.

원맨쇼에 가까운 김혜윤의 분투 속에 로운, 이재욱, 이나은, 정건주, 김영대, 이태리 등 신예들도 뛰어난 비주얼을 바탕으로 극을 아기자기하게 만든다.

시청률은 '동백꽃 필 무렵'을 비롯해 쟁쟁한 작품들 사이에서도 3%대를 유지하고 있다.

CPI 1위는 엠넷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267.0)이 차지했다. 전주보다무려 8계단 오른 성적이다.

'퀸덤'은 시청률이 0%대이지만 걸그룹들의 열정 넘치는 경연 전쟁을 보여주며 온라인에서는 모든 무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25·본명 정호석)의 솔로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진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미국 가수 베키 지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연합뉴스

'방탄' 제이홉, 美 빌보드 '핫 100' 81위

'치킨 누들 수프' 솔로곡 다운로드 1만1000건 기록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25·본명 정호석)의 솔로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진입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빌보드 뉴스에 따르면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는 다음 날 업데이트할 최신 차트에서 '핫 100' 81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솔로곡으로 '핫 100'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또 한국 아티스트로는 여섯번째, 솔로 가수로는 싸이와 씨엘에 이어 세 번째 진입이다.

'핫 100'은 미국 내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 판매 데이터 등을 합산한다.

닐슨뮤직에 따르면 '치킨 누들 수프'는 스트리밍 970만건과 다운로드 1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 곡은 제이홉이 사운드클라우드 등에 무료로 공개한 노래임에도 음원 플랫폼에서 이 같은 성적을 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핫 100' 차트 세력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그룹 개별 멤버들 역시 그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치킨 누들 수프'는 제이홉이 미국 가수 베키 지(Becky G·22)와 작업한 곡으로 지난달 27일 공개됐다.

곡 공개 후 전 세계 팬들 반응은 뜨거웠다. 틱톡의 방탄소년단 계정에 공개된 제이홉의 댄스를 따라 추는 영상을 '#CNSchallenge'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는 '치킨 누들 수프 첼린지'가 잇달았다.

앞서 이 곡은 영국 오피셜차트 '싱글 차트 톱 100'에서 82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심은경, 충격적 진실을 마주하다

영화 '신문기자' 17일 개봉
'아베 사학 스캔들' 모티프
일본 흥행 수익 4억엔 돌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일본서 주목받은 영화 '신문기자'가 이달 17일 국내 개봉한다.

한 신문사 사회부 기자가 익명의 제보 문건을 받은 뒤 국가가 숨긴 충격적인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 중 하나인 '가케 학원' 스캔들과 내용이 유사해 화제가 됐다. 가케학원이 대학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스캔들 핵심이다. 아베 총리는 가케학원 이사장과 친구 사이다.

영화는 당시 스캔들을 취재한 도쿄신문 사회부 기자 모치즈키 이소코가 쓴 동명저서를 밑그림으로 했다. 지난 6월 28일 일본서 불과 143개 상영관에서 개봉했으나 한 달도 채 안 돼 33만명을 동원, 흥행 수익 4억엔(44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영화는 여러모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극 중 내각정보조사실이 주로 하는 일은 SNS를 통한 댓글 조작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선동하는 것이다. 정부와 고위관료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만들거나, 정치적 숙적을 '불륜 스캔들'로 낙마시키고, 반정부집회에 참석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신상털기도 서슴지 않는다.

모두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일들이다. 영화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 한국사회의 민낯이 함께 떠오른다. 극 중 고위 관료는 진실이 밝혀지자 이렇게 말한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형태만 갖추면 된다". '무늬만 민주주의'를 추구할 뿐정부는 결국 권력 유지가 최종 목표인 셈이다. 그런 견고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 언론도 제 역할을 못 한다.

형식 면에서는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포스트'나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할리우드 영화들과 비슷하다. 주변의 압박, 내부고발자의 고뇌, 신문 제작 과정 등이 비교적 자세히 담긴다. 다만 템포는 느린 편이다. 사건을 속도감있게 추적하기보다 인물의 내적 갈등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 연장선에서 그린 결말은 호불호가 갈릴 만 하다.

영화 '써니' '수상한 그녀'에 출연한 심은경이 요시오카 역을 맡았다. 일본 정치 영화에 한국배우가 주연을 맡게 된 것은 일본 배우들이 '반(反)아베 정권' 영화 출연을 꺼린 탓이다. 심은경이 출연하면서 요시오카를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란 인물로 설정했다.

심은경은 제작 노트에서 "저널리즘에 관한 영화이면서도 다양한 사고방식이 교차하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를 묻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영화 '신문기자'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심은경(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5 숨터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동백꽃 필 무렵(재)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어쩌다 발견한 하루 (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수상한 장모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8:00 딩동댕 유치원 9:15 올리 앤 문 10:00 지식의 기쁨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5:10 코코몽3 15:55 슈퍼공룡파워 16:10 예술아 놀자 16:40 딩동댕 유치원 17:30 페파 피그 19:00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20:30 자이언트 펭TV
12:00 KBS 뉴스 12 13:00 사랑의 가족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쥐라기 캅스 쥬라킹 14:25 콩순이의 율동교실 14:40 시노스톤 15:10 KBS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미쳤어요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17:30 동물의 왕국	12:1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4:0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7:00 또봇V 17:15 핑크퐁 원더스타 17:30 주간연예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13:20 꾸러기 식사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벅스봇 15:50 빠샤 메카드S 16:20 모두 다 쿵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PD수첩(재)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2019 KLPGA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다큐 인사이트 22:55 더 라이브 23:35 숨터 23:40 어게인 가요톱10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제보자들 22:00 동백꽃 필 무렵 22:35 동백꽃 필 무렵 23:10 해피투게더	18:25 테마기행 길 19:30 MBC스포츠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2:00 MBC 뉴스데스크 22:55 섹션 TV 연예통신 23:30 섹션 TV 연예통신	18: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19:00 제주를 말하다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시크릿 부티크 22:40 시크릿 부티크 23:10 접속! 무비월드 1부 23:50 접속! 무비월드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9:30 열린TV광장 10:00 산짓물공원 콘서트 12:10 얼마예요 13:30 열린TV광장 14:30 KCTV 씨네한수 16:10 얼마예요 17:40 KCTV 시청자세상 18:00 로드맨 히트 더 로드 19:00 KCTV 뉴스7 20:00 산짓물공원 콘서트

10(목)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48년 경쟁자 또는 상대자로 인하여 피곤. 전문직은 인정받고 일이 많아진다. 60년 함께 모여 기쁨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 술은 자제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72년 집안에 근심이 있으니 안부전화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84년 친구따라 가서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37년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구설이 된다. 49년 계획한 일에 차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뤄라. 61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한 변동, 이동보다는 신중함이 이익이다. 73년 문서와 관련된 업종은 꼼꼼함과 신중함 필요. 철저한 재확인 요망. 85년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38년 위장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음식에 주의해야 한다. 50년 집착하면 오히려 일이 막히니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함. 62년 뜻밖에 귀인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른다. 74년 갑작스런 일에 놀라거나 걱정스런 소식을 접하니 스트레스 극히 조심. 86년 부모님 걱정이 앞서니 편안하시도록 전화를 드려라.

39년 방해자가 있어도 지혜롭게 극복하면 순조롭다. 51년 만남에 참석한다. 공동의 관심사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라. 63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되니 여유와 신중함 필요한 날. 75년 새로운 계획 창출, 의욕이 강하다. 하지만 무리한 창업이나 계약은 금물. 87년 집중력 있는 시간대에 공부하고 휴식도 챙기길.

40년 음주는 적당히. 자녀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52년 자녀를 위한 일이나 금전문제로 신경전이 생기니 미리 준비를. 64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애정 문제에 배려 필요. 76년 직장, 이성문제는 순조롭고 기쁨이 따르니 약속이 이루어지면 만나라. 88년 모임 등에서 튀고 싶어한다. 조금은 자중하라.

41년 전문성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 53년 의욕에 비하여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65년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영역이 넓어진다. 개인사업자는 유리. 77년 갈증이 많이 나니 수분 또는 야채섭취가 필요, 술은 적당히 마셔라. 89년 인적자원이 절실하고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42년 남의 일에 간섭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54년 이익이 발생 되고 활동도 넓어진다. 6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78년 업무량이 늘고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업무 능력은 인정받는다. 90년 분실 또는 건망증이 올 수 있다. 외출시 물건, 지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43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55년 상대가 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해주니 이럴 때일수록 책임완수가 필요하다. 67년 과장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다가 들통이 날 수 있다. 79년 자신이 생기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점차 노력한다. 91년 행복도 불만도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44년 사업장이나 활동에 능률이 저하되거나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6년 음식업이나 손으로 하는 업은 인기가 많다. 68년 활동량이 많아지고 생산이 증대되니 또한 기쁘다. 80년 경쟁하지 마라. 자존심이 상한다. 이겨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92년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으로 이상이 오거나 근육통이 생긴다.

45년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도난 조심하라. 57년 영업에 이익이 있고 동업자나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69년 반길 반흉이 있으니 오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정중히 거절하라. 81년 친하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간에 의견마찰로 헤어짐도 있다. 93년 친구들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고민이 많다.

46년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인덕을 한탄한다. 58년 가까울수록 예의와 신용이 중요하니 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70년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윗사람에게 공손하라. 82년 취업이나 시험에 불리하니 중요한 사안은 다음으로 연기하라. 94년 친구와 함께 나누어 먹을 일이 생긴다.

47년 문상,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술은 자제 필요. 59년 부족함을 채우려고 갈망한다. 이성, 직업에서는 무난하다. 71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서 자문을 구하라. 83년 분실 또는 건망증이 올 수 있다. 외출시 중요한 것은 두고 가라. 95년 집안에 할 일이 많아지고 좋은 소식도 온다.